경제적 은퇴준비행동의 영향요인: 세대간 자산이전 요인을 중심으로*

Factors on Financial Preparation for Retirement: Focusing on Money Transfer between generations

상명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석 사 정 지 영**
상명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교 수 양 세 정***

Department of Consumer & Housing Studies, Sangmyung University
Master's degree Jung, Ji Young
Department of Consumer & Housing Studies, Sangmyung University
Professor Yang, Se-Jeong

〈목 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고찰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money transfer between generations on preparation behaviors for retirement, separated into assets and saving for retirement. The survey was conducted by targeting 422 married people across the nation. The factor of money transfer between generations was defined as the inheritance and gift variable.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0. Correlation, analysis of variance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s were utilized.

The results indicated that preparation behaviors for retirement are affected by the economic independence of parents, inheritance, expenses for children's education, and marriage. Retirement assets were significantly affected by inheritance, the economic independence of parents, educational expenses for children, financial assets, and amount of debt, while the significant factors related to retirement savings were interests on retirement, income, wedding expenses for children, economic independence

* 본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에서 부분 발췌되었음.
** 주저자: 정지영(urdjung@gmail.com)
*** 교신저자: 양세정(sjyang@smu.ac.kr)

of parents, and educational expenses for children. It was concluded that the financial preparation for retirement ought to be expanded from one household's finances to finances between generations.

Key Words : 자산이전(Money transfer), 은퇴준비(retirement preparation), 은퇴자산(retirement asset), 은퇴저축(retirement savings)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한 연구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예비퇴직자들은 은퇴자금 준비가 미흡하여 은퇴 후 필요한 비용에 비하여 2/3 밖에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은퇴자금으로 총 5억 1천만원이 필요한데 준비가능한 자금은 3억 3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직장인 중 '노후준비가 전혀 없다'고 답한 사람의 비중이 한국 32%, 프랑스 21%, 독일 9%, 네덜란드 9%로 한국 직장인의 은퇴준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부족함을 알 수 있다(피델리티 자산운용자료, 중앙일보 재인용, 2010).

은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은 학계의 다양한 분야의 연구로 이어지고 있으며, 가정관리와 소비자학 분야에서는 은퇴생활 만족도, 은퇴 후의 소득수준 및 은퇴대비를 위한 저축 등 은퇴 후 경제적 여건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대다수의 연구들에서는 은퇴만족도에 경제적 여건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만(신화용, 조병은, 2001; 안종범, 전승훈, 2002; 배문조, 전귀연, 2004; 유경원, 2007; 백은영, 2009; 정운영, 백은영 2009; 정혜경, 정영숙, 2010), 정작 경제적 은퇴준비가 불충분하다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문숙재, 여윤경, 2001; 여윤경, 정순희, 문숙재, 2007; 이지영, 최현자, 2009; 권택호, 2010). 즉 은퇴준비가 얼마나 부족하고 어떤 가계가 부족한지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있었다. 하지만 누가 어느 정도의 은퇴준비를 하고 있으며, 어떤 이유로 은퇴준비를 할 수 있거나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은퇴준비 관련 연구방법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은퇴준비행동을 다룬 기존 연구들은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으로 은퇴를 위한 저축액, 연금가입 여부, 은퇴필요자금 마련 정도, 은퇴준비만족도 등을 다루었다. 가계의 경제적 특성, 은퇴태도나 관심, 인식 같은 은퇴관련요인을 은퇴준비행동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들고 있으며, 가계소득과 은퇴태도가 은퇴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숙재, 김순미, 1997; 정운영 외, 2009). 대부분의 연구들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이나 저축불입액을 은퇴준비행동의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한 가정의 은퇴준비는 현재시점의 은퇴저축정도와 현재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 및 부모님 등으로부터 이전 자산 등을 포함하는 은퇴자산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은퇴저축은 현금흐름 상에서의 은퇴준비행동이고, 은퇴자산은 은퇴저축이 축적된 형태의 은퇴준비행동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은퇴자산과 은퇴저축 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즉 은퇴준비로 가용한 축적된 자산과 매달 행해지는 은퇴저축행동을 함께 고려한다. 또한 은퇴자산의 범위를 금융자산이나

연금자산으로 한정짓지 않고 은퇴대비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부동산의 가치를 현가로 환산하도록 하여 은퇴자산에 추가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은퇴에 대비한 경제적 요인을 분석하면서 하나의 가계를 중심으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은퇴준비는 가계경제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이는 본인가계 뿐 아니라 부모의 경제적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또한 자녀에게 앞으로 교육 및 결혼비용으로 얼마나 지출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고려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본인이 자녀에게 교육 및 결혼비용으로 지출할 의향, 부모에게서 상속을 받을 자산이 있거나 또는 반대로 자산을 이전해야 하는 등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세대 간 자산이전 행위를 본 연구의 범위에 추가하였다.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자녀는 둔 50대 성인의 경우 약 41%가 대학 졸업 때까지 부모가 부양책임을 갖는다고 답하였으며, 33%가 결혼할 때까지 부양책임을 갖는다고 응답하였다(김승권 외, 2009). 이런 상황은 중년기 부부들의 노후대비를 어렵게 할 것이며, 다수의 중고령자 68%가 노후에 대한 대비를 못하고 있다고 답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다소 오래된 자료이긴 하나 성영애(1999)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금전보조를 받는 가계는 16.4%로 나온 반면, 금전보조를 제공하는 가계는 21.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금액 또한 금전보조를 제공하는 가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이 역시 노후대비에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으로 은퇴자산 및 은퇴저축을 함께 다루게 되며, 은퇴자산과 저축의 보유 여부, 규모여부를 함께 다룬다. 이러한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세대간 자산이전 요인들을 포함하여 분석을 수행할 것이다. 우리나라 가계의 경제운용에서 중요한 요인일 것으로 추측되는 부모와 자식 간의 자산이동 요인에 대한 실증연구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은퇴준비행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되며, 재무설계 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은퇴준비행동 관련연구

경제적 은퇴준비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으로 Ando와 Modigliani(1963)의 생애소득가설(Life-Cycle Income Hypothesis)이 언급되어진다. 개인이 자신의 일생동안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행동을 선택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은 전 생애에 걸쳐 일정수준의 소비를 유지하려하기 때문에 가계소비는 평생소득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은퇴 이후의 소비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은퇴 전에 저축을 통하여 은퇴 후가 대비되어야 한다. 이 생애소득가설에 따르면 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개인은 잉여분을 저축하여 사망시점에 아무런 부를 남기지 않고 모두 소비하는 것을 가정으로 저축에 대한 동기를 설명한 이론이 될 수 있다. 결국 은퇴준비도 합리적인 인간이 은퇴 후 소비를 위해 행하는 합리적인 경제행위로 해석된다.

대다수 은퇴준비관련 연구들은 생애소득가설을 이론적 배경으로 연구모델을 설정하고 은퇴준비행동을 연구해 오고 있다. 문숙재와 김순미(1997)는 은퇴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면서 연금가입총액의 유무와 액수를 은퇴준비행동변수로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총소득/총지출 보다는 총자산/총부채가 은퇴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며, 총 부채액의 확대기에는 노후대비를 하지 않는 가계의 비율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여 부채와 자산의 비율이 은퇴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안종범과 전승훈(2005)의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가계저축의 목적을 분석한 결과 노후대비 저축은 가계의 중요한 저축목표중 하나이지만 소득의 감소, 부채증가 등의 이유로 저축을 줄여야 하는 경우 노후대비 저축량을 우선적으로 줄이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남성 직장인을 대상으로 연구했던 곽인숙 외(2007) 연구도 노후대비저축액을 노후경제적 준비 변수의 하나로 분석하였다. 노후부양의식, 은퇴태도, 노후부양의식 등 다양한 변인의 노후대비저축액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였는데 안종범과 전승훈(2005)의 연구결과와 비슷하게 가계총소득에만이 노후대비 저축액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운영과 백은영(2009)은 은퇴준비행동으로 매달 은퇴를 위한 월 적립금과 은퇴를 주관적으로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고 보는가 여부 등 두 가지로 정의하였으며, 영향요인으로 은퇴에 대한 인식과 은퇴태도를 다루었다. 연구결과 은퇴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은퇴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월소득, 주택소유형태, 연령 등도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은퇴준비와 관련하여 은퇴를 위해 준비된 자금이 은퇴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충족하는가를 다룬 연구들이 다수 있다. 주로 은퇴자금적정도나 충족도라는 용어로 사용되어지는데, 일부 연구에서는 이를 은퇴준비행동의 한 지표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들 연구들은 주로 은퇴준비가 되었는가 아닌가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박창제(2008)는 2007년 사회통계조사자료의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노후준비여부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남성가구주, 높은 교육수준, 결혼상태, 경제활동, 현재소득인식, 주택소유, 거주 지역, 전반적 생활여건 등이 노후준비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영과 최현자(2009)의 연구는 2007년 투자자조사를 이용해서 은퇴자금의 충분성을 분석한 결과 25.7%만이 충분하다고 나타났으며, 영향요인을 분석한 로짓분석 결과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가구주성별, 연령, 학력, 은퇴대비 여부, 자가보유여부, 가계수입, 가구원 수 등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20대에서 50대까지의 중산층을 조사대상으로 한 여윤경, 정순희, 문숙재(2007)의 연구에 의하면 34%가 주관적으로 은퇴준비가 충분하다고 답하고 있으며, 은퇴준비에 대한 충분성은 가구주 연령, 부채유무, 소득수준, 부동산자산, 예상은퇴연령, 개인적 은퇴준비 여부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지영과 양세정(2013)의 은퇴자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에서는 소득, 예상은퇴연령, 은퇴후 생활비, 은퇴자산 및 은퇴저축액이 은퇴자금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KB경영연구소(2012)는 은퇴준비지수를 재무준비지수와 비재무준비지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재무준비지수는 은퇴시점의 노후 준비자금 추정액을 노후 총 필요자금으로 나눈 값으로 사용하였는데, 자녀가 없는 가계의 경우 경제적 은퇴준비가 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퇴준비에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 우선 자녀 교육비용과 결혼비용을 꼽는 것과 상통하는 조사결과를 보여준다. 이 밖에 가구주연령, 가구주 직업이 재무준비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나타났는데, 공무원이나 준공무원의 경우, 가구주연령이 젊을수록 재무준비지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선행연구들을 정리하면 경제적 은퇴준비에 소득, 자산, 부채, 월지출비율과 같은 경제적 요인들과 은퇴에 대한 인식과 태도와 같은 비경제적 요인 및 연령, 직업, 교육정도 등의 인구통계학적 요인이 모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 한 가계의 입장에서 현재의 자산 및 저축액이 자녀가 앞으로 교육과 결혼 등에 의해 은퇴준비금액의 변수가 될 수 있고, 또한 한 가계에서 제외될 수 있는 부모로부터의 이전받을 수 있는 자산 또는 부모로 이전하는 자산의 여부를 좀 더 심층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2. 부모와 자녀간의 자산이전행위 연구

한 가정에서 나타나는 세대간 자산이전에 대한 연구는 경제적 자산을 중심으로 연구되어왔다. Becker(1991)는 이타주의론을 기초로 하여 자녀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설명하였으며, 이러한 가족이전의 경제적 모형은 가족의 재화와 서비스를 높여주는 이타적 가장이 이기적인 자녀들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이타주의와 효율성의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었다. 이러한 이타주의에 입각한 자산이전의 분배기준은 우선 '보상적 기준'이었다.

그러나 Bernheim 외(1985)는 현실적으로 완벽한 이타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적으로 자산이전에 대하여 '교환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만약 부모와 자녀간의 완전한 이타주의가 성립한다면 상속보다는 증여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실제 미국의 많은 부자들은 사전 증여보다는 사후 상속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는 자녀의 서비스를 유도하기 위한 묵시적인 상속을 약속하여 죽음의 시기까지 권력자원을 보유한다고 하였다(Bernheim et. al, 1985; Becker, 1974).

이렇게 부모와 자녀간의 자산이전행위 연구들은 부모의 상속행동 및 그 원인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었으나 실제 이러한 자산이전은 경제적으로 독립한 자녀와 양방향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아진다. 즉 한 가계에서 부모에게 자산을 이전 받기도 하지만 이전해주는 경우 역시 존재한다. 이에 McGarry와 Schoeni(1995)는 부모들이 자녀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와 자녀가 부모로 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를 함께 다루었다. 그 결과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자녀에게 더 많은 자산이전을 하며, 자녀 역시 같은 경향을 보여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부모에게 자산이전을 많이 하는 것을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김지연(2006)이 성인자녀와 부모간의 자원 교류행동을 분석하여 자원수혜형가구와 자원제공형 가구로 분류하였다. 자원 수혜형은 14.8%, 자원 제공형 가구는 85.2%로 다수의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자원을 제공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성인자녀가 부모에게 자산이전 행위는 한국가구패널조사(1996)를 이용한 성영애(1999)의 연구에서는 자녀로부터의 금전적 수혜를 받는 가계는 16.4%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였다. 또한 자녀에게 받는 보조액이 부모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가 넘고, 주 제공 자녀는 가구주가 45-54세의 고소득 가계였다. 이후 연구들에서도 자산이전행위는 부모와 자녀사이에서 양쪽 다 존재함이 드러난다. 김희삼(2008)의 연구에서는 2003년도 기준으로 60세 이상의 노인가구주 5가구 가운데 2가구는 매월 생활비로 자녀에게서 일정한 금액을 이전받고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자녀에게서 이전받는 금액의 평균은 약 24만 원 정도로 분석되었다(김순미, 박미려, 2008).

반대로 부모가 성인자녀에게 이전하는 자원의 경우 배희선(2008)의 연구에서는 평균 14.4년간의 소득가운데 70%가 교육비와 결혼비용 등의 형태로 이전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경제적인 부담이 부모의 노후대비와 경제적 자립에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전자원의 규모를 보면 김지연(2006)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성인자녀에게 이전하는 금액이 연평균 205만원, 반대의 경우는 131만원으로 성인자녀에게 이전되는 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결국 성인자녀가 부모에게 자원을 이전하는 가구는 상대적으로 빈도는 높지만 평균금액은 적은 편이며, 반대로 부모가 성인자녀에게 자원을 이전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지만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 그리고 금전적 자원이전은 가계가 보유한 자원의 확대나 축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은퇴준비에 영향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김순미와 고선강(2012)의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자원이전을 하는 중년기 세대들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경제적 자원

이전이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은 노후생활준비를 주관적으로 5점 척도로 평가하게 하였고, 세대간 자원이전 변인으로 부모에게 제공한 경제적 자원, 자녀에게 제공한 경제적 자원, 부모로부터 받은 경제적 자원, 자녀로부터 받은 경제적 자원의 4개의 더미변수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자원을 제공받는 경우는 노후생활준비를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원을 제공하는 경우는 노후생활준비를 더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가계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부모로 인해 성인자녀의 경제적 은퇴준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반대로 부모가 자원이전을 하는 경우는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자원을 이전받는 성인자녀의 은퇴준비행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과 연구문제

본 연구는 은퇴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 세대간 자산이전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와 그 영향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자원이전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산이전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자원이전이 자산이전보다 포괄적 의미로 금전적인 것 외의 것을 포함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금전적 자원만을 포함하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고자 함이다.

우선 은퇴준비행동에 대해서 은퇴대비 저축액뿐 아니라 은퇴용 자산이 있는가의 여부와 은퇴저축액 및 은퇴자산액의 규모를 포함하였다. 은퇴저축과 은퇴자산의 보유 여부는 은퇴준비를 하고 있는가의 행동 자체의 여부를 의미하며, 은퇴저축액과 은퇴자산액은 은퇴준비의 충실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은퇴준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우선 은퇴관련요인, 상속/증여요인 및 개인적요인의 특징으로 분류되는 그룹별 특징을 분석하고 이후 은퇴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영향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하였다.

[1] 은퇴자산과 은퇴저축 여부에 따른 각 그룹의 은퇴준비행동 및 각 요인들의 평균값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2] 은퇴 자산여부 및 은퇴 저축여부의 결정요인은 무엇인가?

[3] 은퇴 자산액과 은퇴 저축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영향력은 어떠한가?

은퇴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선행연구에서 나온 변인들을 크게 은퇴관련요인, 상속 및 증여요인, 개인적 요인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태도는 개인의 행동에 일관되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행동에 선행한다는 Fishbein과 Ajzen(1975) 결과에 따라 은퇴준비행동을 위한 은퇴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은퇴태도요인'은 정운영 외(2009)의 연구에서 다루었던 것과 같이 은퇴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포함하며, '은퇴예상요인'의 세부요인들로는 예상은퇴연령과 예상은퇴생활비 등 은퇴 후의 예상되는 항목들로 구성하였다. 생애소득가설에 의거하여 예상은퇴연령이 많거나 예상은퇴생활비가 많을수록 은퇴준비행동을 많이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세대 간 자산이동에 있어서는 응답가계가 부모로의 자산이동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대하는 상속자산의 여부와 함께 부모님의 경제적 자립도를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 이는 부모로부터의 자산이동과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두 경우를 모두 고려하기 위해서이며 특히 금전 지원 이외의 실물지원으로의 이전을 함

께 포함하기 위해 '부모님의 경제적 자립도'라는 항목을 추가하였다. 부모로의 자산이전금액에 대하여 평균 액수로 추산이 힘들기 때문이었다. 다음으로 응답가계가 자녀로의 자산이전을 반영하기 위해 자녀교육비용과 자녀결혼비용에 대한 지출의향을 포함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는 보통 교육자금이나 결혼자금으로 증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배희선, 2008). 아직 자녀가 어린 경우 상속에 대한 구체적 금액을 추산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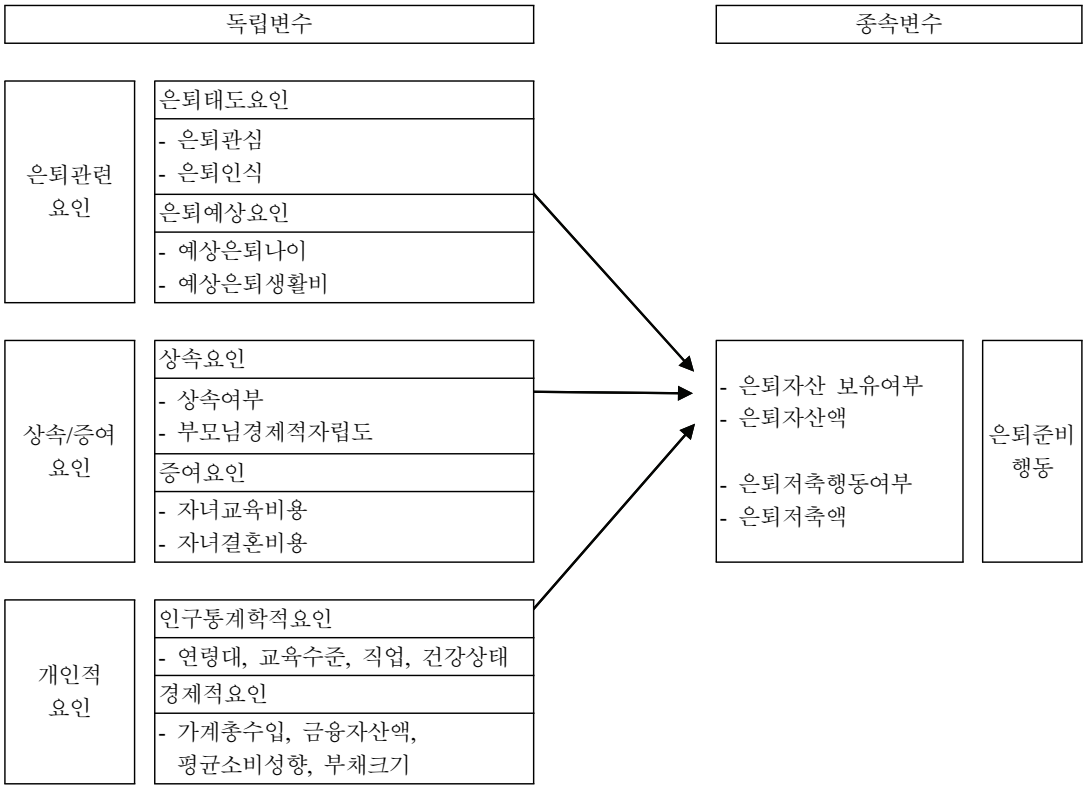
개인적 요인은 인구통계학적 요인들로 연령, 교육수준, 직업, 월평균소득, 총자산 등의 요인을 들 수 있다. 이 요인들은 선행연구(이지은, 2000; 배문조 외, 2004; 곽인숙 외, 2007; 정운영 외, 2009)에서 경제생활 계획 또는 은퇴대비저축액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된 결과를 근거로 하였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은퇴준비행동으로는 '은퇴자산을 보유하였는가?'의 여부와 보유하였다면 현재가치로 그 금액을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은퇴저축을 하고 있는가?'와 그 금액을 역시 작성하도록 하였다. 경제적인 은퇴준비로 현재의 금융자산 등의 자산과 저축액을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고자하였다.

은퇴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은 크게 은퇴관련요인, 상속/증여요인, 개인적 요인의 세 그룹이다. 먼저 은퇴관련요인으로 은퇴관심과 은퇴인식으로 정운영 외(2009)의 연

〈그림 1〉 연구 모형



〈표 1〉 변수에 대한 구체적 정의 및 측정방법

요인			내 용	응답척도
종속변수	은퇴준비행동	은퇴저축여부	은퇴준비를 위해 저축하고 있는지 여부	1 예 0 아니오
		은퇴자산여부	은퇴준비를 위해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1 예 0 아니오
		은퇴저축액	은퇴준비를 위해 매달 저축하는 금액	원
		은퇴자산액	은퇴준비를 위해 모아둔 자산 금액	원
은퇴관련요인	은퇴태도요인	은퇴관심*	1. 평소 은퇴에 대해 자주 생각한다. 2. 은퇴 관련된 TV프로그램 또는 신문기사 등을 주의 깊게 본다. 3. 은퇴에 대해 가족과 진지하게 논의한 적이 있다. 4. 은퇴는 나에게 너무 막연하고 먼 일이다. 5. 은퇴 이후의 삶은 전반적으로 지루하고 재미없을 것이다.	5점 리커트척도 평균값 (4, 5문항은 역으로 코딩함)
		은퇴인식*	1. 나에게 은퇴는 일을 마치고 여가를 즐기는 행복과 편안함이다. 2. 은퇴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3. 은퇴 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있다. 4. 은퇴 후 새로운 직업을 갖고자 노력할 것이다. 5. 은퇴이후에는 정신적으로 나약해질 것이다. 6. 은퇴 이후에는 경제생활이 어려워질 것이다. 7. 은퇴를 생각하면 막연한 불안감이 든다.	5점 리커트척도 평균값 (5, 6, 7문항은 역으로 코딩함)
	은퇴예상요인	예상은퇴나이	가구주의 예상은퇴 나이	만 나이
		예상은퇴생활비	은퇴후 예상되는 월평균 지출액 (현재가치)	원
상속증여요인	상속요인	부모님 경제적자립도	부모님이 본인들의 생활비, 의료비 및 모든 비용을 부담하실 수 있는 상태를 자립도 100이라 했을 때 현재 상태	1~100
		상속여부	향후 예상되는 상속자산 여부	1. 예 0. 아니오
	증여요인	자녀교육비용책임정도	1. 해당없음 2. 일부 3. 전부	1, 2, 3
		자녀결혼비용책임정도	1. 해당없음 2. 일부 3. 전부	1, 2, 3
개인적요인	인구통계학적요인	연령	1. 30대 이하 2. 40대 이하 3. 50대 이상	1, 2, 3
		교육정도	1. 고등학교 졸업 이하 2. 대학교 졸업 3. 대학원 졸업이상	1, 2, 3
		직업	1. 사무/전문직: 사무/기술직, 경영/관리직, 전문/자유직 2. 기능/서비스직: 농/어/임업, 자영업, 판매/서비스직, 기능/숙련공, 일반 작업직	1, 2
		건강상태*	가구주의 건강정도: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답변	5점 리커트 척도
	경제적요인	가계수입	월평균 가계의 총수입	원
		평균소비성향	수입대비 월 지출의 비율	1~100%
		금융자산	가계금융자산 총 액	원
		부채크기	1. 500만원미만 2. 500만원이상~1천만원미만 3. 1천만원이상~3천만원미만 4. 3천만원이상~5천만원미만 5. 5천만원이상~1억원미만 6. 1억원이상~5억원미만 7. 5억원이상	1~7

*5점 리커트척도: 매우그렇지 않다(1)~ 매우그렇다(5)

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수정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각기 5문항과 7문항으로 조사한 후,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응답의 신뢰성은 은퇴관심이 0.65 은퇴인식은 0.76으로 내적일치성을 보였다. 은퇴예상요인으로 예상은퇴시점을 가구주의 나이를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예상 은퇴생활비는 은퇴 후에 필요한 예상생활비를 현재가치로 직접 적도록 하였다.

상속/증여요인에서는 부모에게 자산을 이동할 가능성에 대한 상속요인과 자녀에게 자산을 이동하는 증여요인으로 나누었다. 부모에게 응답자의 자산이 이전할 가능성을 알기 위하여 '부모님 경제적 자립도'를 부모님이 완전히 독립적일 경우를 100으로 가정하였을 때 자립정도를 비율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반대로 부모로부터 자산을 이전받을 경우에 대하여 '상속여부'를 질문하도록 하였다. 증여요인으로는 성인자녀의 부양책임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자녀의 '대학졸업 때까지'가 41%로, '자녀 결혼 때까지'가 33%로 나타났다(김승권 외, 2009). 따라서,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에 대해서 자녀교육비용 및 결혼비용에 대하여 어느 정도까지 책임질 것인지의 여부를 응답받았다.

개인적 요인으로 연령, 교육정도, 직업, 건강상태의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가계수입, 평균소비성향, 금융자산 부채크기 등과 같은 경제적 요인에 대한 설문을 구성하였다. 가구주의 직업에 대해서는 통계청의 직업 분류에 따라 조사하였으며, 직업안정성에 따라 재무적 은퇴준비지수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결과(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2)를 바탕으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재무준비 지수가 공무원/준공무원, 전문직 및 관련종사자, 사무직/경영관리직의 경우 48-68점 이상의 점수를 얻었으나 그 외 판매/서비스직, 기능직, 자영업의 경우 34-39점으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자산항목은 가계를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가계수입이나 금융자산의 경우 금액을 직접 작성하였고, 평균소비성향은 가계수입대비 월지출의 비율로 응답받았다. 부채의 경우에는 부채금액의 범위를 7가지로 정하여 적합한 항목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3. 설문조사 및 표본의 일반적 특성

1) 설문조사방법

설문조사는 온라인 응답과 오프라인 응답을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2010년 6월 14일부터 7월 10일까지 '스노우볼 방식'의 표본추출을 이용한 직접 또는 이메일을 이용하여 84부 회수하였다. 또한 2010년 7월 5일부터 7월 9일까지 온라인 서베이 전문업체인 엠브레인을 통하여 26세 이상부터 65세 이하를 대상으로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법'을 사용하여 365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449명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27명을 제외한 후 최종적으로 422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 은퇴자를 은퇴하기 전의 기혼자이며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다만 기존연구와 같이 사람으로 정의하였고, 따라서 예비은퇴자는 설문에서 직업여부를 질문하여 아직 직업이 있는 사람의 경우를 대상으로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가계운영상 은퇴는 맞벌이 배우자의 은퇴시기와 무관하게 가장의 은퇴로 받아들이는 것이 통상적인 의미이므로(신화용 외, 2001; 배문조, 전귀연, 2004), 응답자의 성별이 여성인 경우 배우자를 중심으로 한 은퇴시기와 은퇴태도 등을 응답하도록 하였다.

2)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본 연구의 응답대상자는 기혼자로 대부분의 가구주가 30-50대였다. 연령대별로는 30대까지가 43%, 40대가 31%, 50대 이상이 25%를 차지하였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65%가 대학교졸업이며 고졸

이하는 18%, 대학원이상은 17%로 나타났다. 직업은 통계청 기준 직업분류표를 이용하여 조사한 후 직업안정성에 따라 사무/기술, 경영/관리, 전문/자유직을 사무/전문직의 한 그룹으로, 나머지 직업을 기능/서비스직이라는 그룹의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은퇴관련요인들의 경우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예상한 은퇴 나이는 평균 59.6세로, 평균 은퇴 시기인 53세(통계청, 2011)보다 5년 이상 은퇴시기를 늦게 답하고 있다. 응답 가계의 평균 금융자산 보유액은 1억 4,347만원이고, 은퇴예상생활비는 현재 가치로 월평균 210만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은퇴관심 및 은퇴인식은 평균 보통정도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항목			빈도	비율
상속/증여요인	상속여부	상속자산 유	161	38.2%
		상속자산 무	261	61.8%
	자녀교육비용	없음	20	4.7%
		일부	280	66.3%
		전부 (원하는 만큼)	122	28.9%
	자녀결혼비용	없음	19	4.5%
		일부	317	75.1%
		전부 (원하는 만큼)	86	20.4%
개인적요인	가구주 연령대	30대 이하	183	43.3%
		40대	133	31.5%
		50대 이상	106	25.1%
	가구주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77	18.2%
		대학교 졸업	273	64.7%
		대학원 이상	72	17.1%
	가구주 직업	사무/ 전문	279	66.1%
		기능/ 서비스	143	33.9%
총 합 계			422	100%
항목			평균값	표준편차
은퇴관련요인		예상은퇴나이	59.6세	5.98
		예상은퇴생활비	210만원	104만원
		은퇴관심	3.08	0.60
		은퇴인식	3.13	0.57
상속/증여요인		부모님 경제적 자립도	61.91%	35.94%
개인적요인		가계수입	월 449 만원	297만원
		평균소비성향	74.2%	20.79%
		금융자산	1억4,347만원	6억 214만원
		부채크기	3.96	1.45
		건강상태	3.49	0.81

상속 및 증여 요인에 관련하여 조사대상자의 38.2%가 향후 상속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교육비용이나 자녀결혼비용에 대해서도 비교적 관대하여 자녀교육비용의 경우 28.9%가 전부 지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자녀결혼비용의 경우 20.4%가 자녀가 원하는 만큼 모두 지출하겠다고 하였다.

가계소득 평균이 449만원, 평균소비성향은 74%로 나타나 응답자는 평균 월 333만 원 정도를 지출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자산의 평균은 1억 5천만 원으로 나타났고, 부채를 보유한 응답자가 61%정도로 부채구간을 7개로 나누어 응답을 받았다. 평균값이 2.43점으로 이는 구간값을 고려했을 때 1,500만원~2,000만원 사이로 추정된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 은퇴자산은 1억 3,902만원이었다. 이 중 은퇴 자산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67가계로 39.6%에 해당하는데, 이들의 평균 은퇴자산을 3억 5,556만원이었다(<표 3>). 이 값은 피델리티자산의 결과인 3억 3,000만원에 비해 약간 높은 수치이다. 전체가계의 월평균 은퇴저축액은 36만원이었고, 이들 중 은퇴저축을 하는 가계만으로 분석하였을 때는 86만원이었다. 은퇴저축을 하는 가계는 178가계로 전체 조사대상자의 42.2%에 해당하였다.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각 변수의 기술통계 값을 구하였다. 독립변수의 특성에 따른 은퇴준비행동의 차이를 보기 위하여 변수유형에 따라 Chi-test, T-test, 분산분석 및 Pearson 상관관계를 수행하였다. 분산분석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는 경우 각 그룹 간 차이검증을 위하여 Duncan 분석을 사용하였다.

은퇴준비행동에 대한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및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은퇴용 자산여부와 은퇴대비 저축여부는 이항변수이므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은퇴용 자산여부는 금융자산 뿐 아니라 그 외의 형태로 존재하는 은퇴를 대비할 수 있는 자산이 있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것이다. 은퇴대비 저축여부는 은퇴를 대비한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에 매월 저축을 하는 경우를 1, 그렇지 못한 경우를 0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시 각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을 검증하고자 VIF 값을 검사하여 그 값이 10이상이거나 또는 다른 요인에 비해 상당히 차이를 보이는지의 여

〈표 3〉 은퇴준비행동에 관련된 일반적 특성

항목		빈도	비율
은퇴자산	유	167	39.6%
	무	255	60.4%
은퇴저축	저축 하는 경우	178	42.2%
	저축 안하는 경우	244	57.8%
총합		422	100%
항목		평균값	표준편차
은퇴자산 (전체)		1억 3,902만원	5억 8,521만원
은퇴자산 (있는 경우=167명)		3억 5,556만원	8억 9,537만원
은퇴저축액 (전체)		36만원	119만원
은퇴저축액 (하는 경우=178명)		86만원	171만원

부를 살펴보았다. 은퇴저축액과 은퇴자산액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의 경우 해당 값을 가지고 있는 경우인 178명, 167명을 각각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은퇴자산 및 은퇴저축에 따른 빈도 및 평균값 비교

1) 은퇴자산 보유여부에 따른 평균값 비교

은퇴자산 보유여부별로 각 요인들의 평균값을 비교를 한 결과를 <표 4>에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은퇴자산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가구주의 예상은퇴나이와 부모님의 경제적 자립도는 본 가계의 은퇴자산 유무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 외의 요인들에 대해서는 은퇴자산이 있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은퇴자산이 있는 그룹은 은퇴 이후 예상생활비가 38만 원 정도 더 높고, 은퇴관심과 은퇴인식 또한 더 높았다. 또한 개인적 요인에 대해서도 은퇴자산이 있는 그룹의 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좋게 평가하고 있었다. 또한 가계 총수입은 153만원이 더 높지만 평균소비성향은 8%정도 낮았다. 금융자산액의 경우 은퇴자산이 있다고 답한 가계는 평균 2억 7,700만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은퇴자산이 없다고 답한 가계는 5,657만원이라 답해 현격한 격차를 보였다.

은퇴자산 보유여부별 교차검증을 한 결과(<표 5>)를 보면 은퇴자산여부는 상속자산의 여부와 가구주 연령대, 직업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30대 이하의 경우 은퇴자산이 있다고 답한 경우가 30.1%에 불과하나, 40대는 49.6%로 많았다. 하지만 50대 이상 노령층의 경우 43.4%로 은퇴자산 보유 가계의 비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은퇴자산 보유여부별 평균값 비교

항목		평균값		평균차	t value
		은퇴자산유 N=167	은퇴자산 무 N=255		
은퇴관련 요인	예상은퇴나이 (세)	59.8	59.5	0.33	0.55
	예상은퇴생활비 (원)	2,327,544	1,950,588	376,956	3.66 **
	은퇴관심	3.22	2.99	0.24	4.02 **
	은퇴인식	3.30	3.03	0.27	5.08 **
상속/증여요인	부모님경제적자립도 (%)	61.18	62.38	-1.20	-0.34
개인적 요인	건강상태	3.63	3.40	0.22	2.87 **
	가계수입 (원)	5,408,922	3,881,686	1,527,235	5.06 **
	평균소비성향 (%)	69.61	77.14	-7.53	-3.70 **
	금융자산액 (원)	277,783,697	56,570,863	221,212,834	3.73 **
	부채크기	4.22	3.80	0.42	2.24 *

** p<0.01 * p<0.05

〈표 5〉 은퇴자산 보유여부별 분포 비교

(단위: 명 (%))

항목				은퇴자산유 N=167	은퇴자산 무 N=255	N(%)	Chi검증
범주형변수	상속/증여요인	상속여부	상속자산 유	82 (50.9)	79 (49.1)	161 (38.2)	14.04 **
			상속자산 무	85 (32.6)	176 (67.4)	261 (61.8)	
		자녀교육비용	없음	10 (50.0)	10 (50.0)	20 (4.7)	7.48
			일부	104 (37.1)	176 (62.9)	280 (66.3)	
			전부 (원하는 만큼)	53 (43.4)	69 (56.6)	122 (28.9)	
		자녀결혼비용	없음	6 (31.6)	13 (68.4)	19 (4.5)	8.62
			일부	121 (38.2)	196 (61.8)	317 (75.1)	
			전부 (원하는 만큼)	40 (46.5)	46 (53.5)	86 (20.4)	
	개인적요인	가구주 연령대	30대 이하	55 (30.1)	128 (69.9)	183 (43.4)	13.67 **
			40대	66 (49.6)	67 (50.4)	133 (31.5)	
			50대 이상	46 (43.4)	60 (56.6)	106 (25.1)	
		가구주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22 (28.6)	55 (71.4)	77 (18.2)	5.93
			대학교 졸업	118 (43.2)	155 (56.8)	273 (64.7)	
			대학원 이상	27 (38.7)	45 (61.3)	72 (17.1)	
		가구주 직업	사무/전문	123 (44.1)	156 (55.9)	279 (66.1)	6.81 **
			기능/ 서비스	44 (30.8)	99 (69.2)	143 (33.9)	

** p<0.01 * p<0.05

2) 은퇴저축행동 여부에 따른 평균값 비교

은퇴저축행동에 따른 평균값을 비교분석 한 것은 <표 6>과 같다. 은퇴저축을 하는 경우 은퇴저축을 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은퇴관심과 은퇴인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은퇴에 대한 태도가 은퇴준비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령역시 은퇴저축을 하는 가계가 2-3세가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변인들이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은퇴저축을 하는 가계의 월평균 총수입은 519만원으로 그렇지 않은 가계의 398만원에 비해 120만 원 가량 높았고, 금융자산의 경우 은퇴저축을 하는 가계는 은퇴저축을 하지 않는 가계에 비해 3배가 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은퇴저축을 하는 가계는 평균소비성향이 69.70으로 은퇴저축을 하지 않는 가계의 77.41에 비해 낮으나, 실제 지출금액을 계산하면 각각 361만원과 308만원으로 추산된다. 평균수입은 은퇴저축을 하는 가계가 120만원 정도 많지만 지출에서는 53만원 정도만을 더 사용하여 67만원 가량의 여유자금을 더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예상은퇴나이나 예상은퇴 생활비 및 은퇴저축 증가의향, 부모님 경제적 자립도 등은 은퇴저축여부와 유의하지 않았다.

은퇴저축행동 여부에 따른 교차분석을 한 결과는 <표 7>에서 볼 수 있다. 은퇴자산여부와 마찬가지로 상속여부와 직업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외의 변인들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6〉 은퇴저축행동여부별 평균값 비교

항목		평균값		평균차	t value
		은퇴저축함 N=178	은퇴저축못함 N=244		
은퇴 관련 요인	예상은퇴나이 (세)	59.48	59.70	-.21	-0.15
	예상은퇴생활비 (원)	2,181,460	2,040,163	141,296	1.42
	은퇴관심	3.38	2.87	.51	9.58 **
	은퇴인식	3.27	3.03	.24	4.40 **
상속/증여요인	부모님경제적자립도 (%)	60.39	63.02	-2.63	-0.26
개인적 요인	연령 (세)	42.62	40.82	1.80	2.56 *
	건강상태	3.56	3.45	.11	1.41
	가계수입 (원)	5,185,224	3,976,024	1,209,200	4.23 **
	평균소비성향 (%)	69.70	77.41	-7.71	-3.94 **
	금융자산액 (원)	244,917,978	68,861,488	176,056,490	2.81 **
	부채크기	3.91	3.99	-.08	-1.47

** p<0.01 * p<0.05

〈표 7〉 은퇴저축행동 여부별 분포 비교

(단위: 명 (%))

항목				은퇴저축함 N=178	은퇴저축못함 N=244	명(%)	Chi검증
범주형 변수	상속 / 증여 요인	상속여부	상속자산 유	78 (48.4)	83 (51.6)	161 (38.2)	4.19 *
			상속자산 무	100 (38.3)	161 (61.7)	261 (61.8)	
		자녀교육비용	없음	8 (40.0)	12 (60.0)	20 (4.7)	1.45
			일부	113 (40.4)	167 (59.6)	280 (66.4)	
			전부(원하는 만큼)	57 (46.7)	65 (53.3)	122 (28.9)	
		자녀결혼비용	없음	6 (31.6)	13 (68.4)	19 (4.5)	2.22
			일부	133 (42.0)	184 (58.0)	317 (75.1)	
			전부(원하는 만큼)	39 (45.3)	47 (54.7)	86 (20.4)	
	개인적 요인	가구주 연령대	30대 이하	70 (38.3)	113 (61.7)	177 (43.4)	2.13
			40대	59 (44.4)	74 (55.6)	120 (31.5)	
			50대 이상	49 (46.2)	57 (54.8)	144 (25.1)	
		가구주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이하	25 (32.5)	52 (67.5)	77 (18.2)	5.39
			대학교 졸업	126 (46.2)	147 (53.8)	273 (64.7)	
			대학원 이상	27 (37.5)	45 (62.5)	72 (17.1)	
		가구주 직업	사무/전문	130 (46.6)	149 (53.4)	279 (66.1)	6.58 *
			기능/ 서비스	48 (33.6)	95 (66.4)	143 (33.9)	

** p<0.01 * p<0.05

3) 그룹별 은퇴자산액 및 은퇴저축액의 평균값 비교

은퇴자산액과 은퇴저축액의 그룹별 평균값 비교 결과는 <표 8>과 같이 볼 수 있다. 그룹별로는 은퇴자산액만이 차이를 보이지만 은퇴저축액은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자녀교육비용과 자녀결혼비용의 부담정도에 따라 은퇴자산액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녀의 결혼비용 및 교육비용을 많이 부담하고자 하는 집단일수록 은퇴자산액이 좀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연령대로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은퇴자산액을 더 많이 모아놓았음을 알 수 있으며, 은퇴저축액은 유의한 변수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교육정도와 직업에 따른 은퇴자산액과 은퇴저축액의 차이 역시 유의하지 않았다.

4) 은퇴자산액과 은퇴저축액과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은퇴준비행동인 은퇴자산액과 은퇴저축액, 개인적요인과 은퇴관련요인, 상속 및 증여요인간의 Pearson 상관관계분석은 다음의 <표 9>와 같이 나타난다.

〈표 8〉 변인별 은퇴자산액 및 은퇴저축액 평균값 비교

(단위: 원)

			은퇴 자산액	은퇴 저축액
상속/증여요인	상속여부	상속자산 유	172,438,509	370,496
		상속자산 무	118,408,812	361,111
		F 값	.85	.01
	자녀교육비용	최소	33,216,883 [a]	188,589
		일부	70,692,143 [a]	326,107
		전부	271,782,787 [b]	460,163
		F 값	5.81 **	.55
	자녀결혼비용	최소	17,994,030 [a]	227,058
		일부	82,548,896 [a]	375,709
		전부	375,872,619 [b]	388,690
		F 값	8.96 **	.54
개인적요인	연령대	30대 이하	50,766,120 [a]	270,491
		40대	157,199,248 [ab]	361,278
		50대 이상	268,581,132 [b]	531,603
		F 값	4.83 **	1.62
	교육정도	고졸이하	64,740,260	419,350
		대졸	144,153,480	352,051
		대학원이상	199,005,556	354,166
		F 값	1.01	.10
	직업	사무 전문직	169,398,925	375,125
		기능 서비스	79,755,245	344,335
		F 값	2.23	.06

** p<0.01 * p<0.05

〈표 9〉 은퇴자산액/은퇴저축액과 변인들 간의 Pearson 상관관계분석 결과

		은퇴자산액	은퇴저축액
은퇴관련요인	은퇴관심	0.125 *	0.159 **
	은퇴인식	0.139 **	0.091
	예상은퇴나이	0.073	-0.009
	예상은퇴생활비	0.133 **	0.119 *
상속및증여요인	부모님경제적자립도	0.035	-0.070
개인적요인	연령	0.160 **	0.095
	건강상태	0.091	0.055
	가계수입	0.241 **	0.168 **
	금융자산액	0.871 **	0.058
	평균소비성향	-0.069	-0.122 *
	부채크기	0.259 **	0.069
은퇴자산액			0.085

** p<0.01 * p<0.05

은퇴자산액은 가계수입, 금융자산액 등 경제적인 요인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특히 금융자산액과 강한 양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은퇴관심 및 은퇴인식이 높을수록 은퇴자산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크기와 은퇴자산액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월 은퇴저축액은 가계수입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평균소비성향이 클수록 은퇴저축액은 작아졌으며, 은퇴관심이 높을수록 은퇴저축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은퇴생활비가 많을수록 은퇴자산액과 은퇴저축액은 커지나, 예상은퇴나이와는 무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은퇴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

1) 은퇴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분석

은퇴자산 보유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모형 전체 요약인 <표 10>에서 보면 -2 Log 우도 값이 424.28로 나타나 모형이 적합하고, 유의확률이 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은퇴자산 보유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은퇴인식, 자녀교육비용, 평균소비성향 및 금융자산액이 은퇴자산 보유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인식이 높을수록 은퇴자산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자녀교육비용을 덜 부담하려는 그룹이 은퇴자산 보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보였다. 평균소비성향은 낮을수록 은퇴자산 보유가능성이 높고,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은퇴자산보유가능성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선행연구에서 발견되었던 가계수입과 은퇴자산보유가능성은 통계적으로 무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계수입은 현 시점에서의 현금흐름변수인 반면, 은퇴자산은 다 기간 동안에 축적된 저량 변수의 특성을 가짐에 따른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은퇴자산액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은퇴자산보유여부의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금융자산액, 부채크기가 클수록 은퇴자산액이 컸으며, 상속이 없을 것으로 예상

〈표 10〉 은퇴자산 보유여부 및 은퇴자산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항목			로지스틱회귀분석 은퇴자산보유여부 = 1		다중회귀분석 은퇴자산액	
			B	Exp(B)	B	β
은퇴 관련 요인	예상은퇴나이		-.002	1.002	1,196,462	.024
	예상은퇴생활비		.000	1.000	37.78 *	.120 *
	은퇴관심		-.015	1.016	-993,233	-.002
	은퇴인식		.906 **	.404	52,135,026	.095
상속 및 증여 요인	상속유무(1=상속유)		-.348	1.416	78,398,728 *	.120 *
	부모님 경제적자립도		-.003	1.003	-1,115,001 **	-.130 **
	자녀교육비용	(1=일부)	1.980 *	.138	-1.29E+08 **	-.190 **
		(1=전체)	2.067 *	.127	-1.13E+08 **	-.159 **
	자녀결혼비용	(1=일부)	-1.002	2.724	46,025,951	.065
		(1=전체)	-1.208	3.345	97,441,414 *	.128 *
개인적 요인	연령대	(1=40대)	-.493	1.638	7,642,824	.011
		(1=50대이상)	-.839	2.313	42,442,051	.058
	교육 정도	(1=고졸이하)	.334	.716	12,760,666	.014
		(1=대학원이상)	.550	.577	-52,666,803	-.064
	직업(1=기능서비스 등)		.082	.921	20,859,588	.031
	건강상태		.197	.822	31,335,551	.081
	가계수입		.000	1.000	0.016	.000
	평균소비성향		-.016 *	1.016	563,511	.036
	금융자산액		.000 *	1.000	0.704 **	.577 **
	부채크기		.182	.834	38,994,300 **	.180 **
상수			-4.063	82.332	-4.56E+08 *	
모형요약			Chi-square=55.69		R^2값 = 0.516	
			-2Log우도=286.93		Adjusted R^2값= 0.472	

** p<0.01 * p<0.05

하는 경우 은퇴자산액은 7,800만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의 경제적 자립도가 떨어질수록 은퇴자산을 축적할 여력이 없었으며, 자녀교육비용이 있는 경우 은퇴자산액은 적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자녀결혼비용을 모두 지불하겠다는 가계는 그렇지 않은 가계에 비해 은퇴자산액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대의 경우 여타변수가 동일하다고 보았을 때, 은퇴자산보유여부와는 달리, 은퇴자산액과는 무관하였다.

2) 은퇴 저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분석

은퇴저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은퇴 저축을 하고 있는 경우를 1,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으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모형에 대한 요약은 <표 11>에서 볼 수 있으며 -2 Log 우도 값이 432.21로 나타나 모형이 적합하고, 유의확률이 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11>에 의하면 은퇴저축 여부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은퇴관심, 은퇴인식, 부모님 경제적 자립도, 자녀결혼비용, 가계수입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관심과 은퇴인식은 은퇴저축을 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은퇴인식의 경우에는 은퇴자산여부와 은퇴저축여부 확률을 둘 다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님 경제적 자립도는 낮을수록 은퇴저축 확률을 높여 부모님의 미비한 은퇴준비가 은퇴저축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은퇴저축액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선행연구(배문조 외, 2004; 곽인숙 외, 2007)의 결과와 같이 가계수입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은퇴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매월 은퇴저축액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부모님의 경제적자립도가 낮을수록 은퇴저축액이 높고, 가계수입이 많을수록 은퇴저축액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은퇴자산과 유사하게 자

〈표 11〉 은퇴저축여부 및 은퇴저축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항목			로지스틱회귀분석 은퇴저축여부 = 1		다중회귀분석 은퇴저축액	
			B	Exp(B)	B	β
은퇴 관련 요인	예상은퇴나이		-.023	1.023	-10,795	-.086
	예상은퇴생활비		.000	1.000	0.090	.108
	은퇴관심		1.546 **	.213	208,875 *	.151 *
	은퇴인식		.907 **	.404	175,487	.127
상속 및 증여 요인	상속유무(1=상속유)		-.428	1.534	14,130	.009
	부모님 경제적자립도		-.010 *	1.010	-3,217 *	-.150 *
	자녀교육비용	(1=일부)	1.741	.175	-251,901 *	-.148 *
		(1=전체)	1.484	.227	-63,241	-.035
	자녀결혼비용	(1=일부)	-1.974 *	7.200	346,114 *	.196 *
		(1=전체)	-2.323 *	10.203	289,166 *	.152 *
개인적 요인	연령	(1=40대)	.157	.855	7,138	.004
		(1=50대이상)	.078	.925	-30,006	-.016
	교육	(1=고졸이하)	.657	.518	-66,776	-.030
		(1=대학원이상)	.590	.554	-127,156	-.062
	직업(1=기능서비스 등)		-.156	1.169	-5,870	-.004
	건강상태		-.269	1.309	-6,719	-.007
	가계수입		.000 **	1.000	0.060 **	.206 **
	평균소비성향		-.015	1.015	-3,708	-.095
	금융자산액		.000	1.000	0.00	-.044
	부채크기		-.225	1.253	-27,554	-.051
상수			-3.751	65.318	289,549	
모형요약			Chi-square= 84.271		R^2값 = 0.199	
			-2Log우도= 262.840		Adjusted R^2값= 0.128	

** p<0.01 * p<0.05

녀교육비용이 많을수록 은퇴저축액은 줄고, 자녀결혼비용을 많이 지출할수록 은퇴저축액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은퇴준비행동(은퇴자산, 은퇴저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존의 한 가계내의 재무적/ 비재무적 변인들과 함께 세대간의 자산이동에 대한 고려를 하기위해 상속/증여 요인을 추가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그룹 간 평균값비교 분석 결과 은퇴준비행동(은퇴자산, 은퇴저축)을 하는 경우 은퇴관심과 은퇴인식, 가계수입과 평균소비성향 및 금융자산액에서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은퇴준비행동은 은퇴관심과 은퇴인식으로 나타나는 태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은퇴준비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은퇴관심과 은퇴인식, 높은 연령, 높은 수입, 더 많은 금융자산액 및 낮은 평균소비성향을 보였음을 의미한다.

둘째, 은퇴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로지스틱 및 다중회귀 분석결과 은퇴 자산여부와 자산액의 결과를 보면 은퇴자산을 보유할 확률은 은퇴인식(+), 자녀교육 전체(+), 평균소비성향(-), 금융자산액(+)으로 나타났다. 은퇴자산액의 규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는 예상은퇴생활비(+), 상속있는 경우(+), 부모님의 경제적 자립도(-), 자녀교육전체(-), 자녀결혼일부(-), 금융자산액(+)과 부채크기(+)로 분석되었다. 즉 은퇴 자산은 자산에 관련된 요인으로 금융자산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인다.

셋째, 은퇴저축 행동여부 및 저축액에 대한 로지스틱 및 다중회귀 분석결과 은퇴관심과 부모님의 경제적 자립도 및 가계수입이 공통적으로 유의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은퇴저축행동과 그 금액은 유량변수로 매월 현금흐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계수입이 은퇴저축행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은퇴저축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경우 부모님의 경제적 자립도(-), 자녀교육일부(-), 자녀결혼일부 및 전체(+), 은퇴관심(+), 가계수입(+)로 나타났다. 부모님의 경제적 자립도가 낮을수록 스스로가 은퇴저축을 하려는 의향이 증가하지만 그 금액은 적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대 간 자산이전에 관련된 상속/증여요인 가운데 은퇴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는 상속유무와 부모님의 경제적 자립도, 자녀교육비용 및 자녀결혼비용이 은퇴자산액과 은퇴저축액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은퇴준비행동이 한 가계를 중심으로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세대 간 자산이동에 관한 변인들이 은퇴준비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은퇴준비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자녀교육비용 및 결혼비용을 꼽았던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 다만, 자녀의 교육비에 대해서는 은퇴자산을 보유할수록 좀 더 많이 지원해주고 싶어하나, 자산액이 실제 많은 경우에는 교육비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생각이 없다고 하였다. 이와 반대로 자녀결혼 비용지원을 줄일수록 은퇴저축을 할 확률이 높으나 실제 은퇴 저축하는 사람들의 경우 자녀결혼비용 지원의향이 높을수록 더 많이 은퇴저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은퇴준비행동을 이해함에 있어 한 가계내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의 자산이동을 고려하여야 하며, 부모님과의 자산이전여부 및 자녀의 교육비/ 결혼비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였다. 부모님으로부터 자산이전을 받는 경우 은퇴자산액이 더 높으며, 부모님의 경제적 자립도는 낮을수록 은퇴저축행동에는 동기를 부여하지만 그 금액은 상대적으로 낮아 저축할 수 있는 자금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

람들의 자발적인 은퇴준비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은퇴관심과 은퇴인식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외에도 은퇴준비가 부족한 현재의 은퇴자들이 성인자녀들에게 자산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법 및 예비은퇴자들의 자녀 교육비용과 결혼비용에 대한 인식변화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은퇴를 중심으로 상속에 대한 개념을 함께 접목하면서 상속/증여에 대한 연구접근방식이 기존의 다른 연구들과 다르게 미숙하여 대부분 주관적인 정도를 측정하였다. 그러다보니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의도를 단지 결혼비용과 교육비용의 두 가지로만 측정하고 그 정도를 금액이 아니라 명목척도로 측정한 점, 나이가 어릴수록 상속에 대한 기대가 적고 예상이 힘들다는 점 등의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상속/증여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연령대를 선별하여 은퇴준비와 상속을 접목시켜 분석해보는 방법 및 좀 더 객관적인 데이터를 사용하여 추후 상속/증여에 따른 은퇴준비효과를 알아보는 연구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1) 곽인숙・홍성희・이경희(2007). 남성 직장인의 은퇴계획유형과 경제적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1(2), 21-42.
2) 권택호(2010). 한국 가구의 은퇴재무설계 적정성 분석. 재무관리연구, 27(3), 151-181.
3) 김순미・고선강(2012). 중년기 가정의 세대 간 경제적 자원이전과 노후생활 준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2), 59-76.
4) 김순미・박미려(2008). 중고령자 가구의 경제적 자원 교류유형 및 교류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5), 1-14.
5) 김승권・김유경・조애저・김혜련・임성은(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6) 김지연(2006). 성인자녀와 부모간 경제적 자원 교류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7) 김희삼(2008). 사적소득이전과 노후소득보장. 한국개발연구, 30(1), 74-130.
8) 문숙재・김순미(1997). 은퇴준비를 위한 재무계획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기초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5), 1-15
9) 문숙재・여윤경(2001). 예비노인의 은퇴와 경제적 복지의 예측. 소비자학연구, 12(1), 115-131.
10) 박창제(2008). 중・고령자의 경제적 노후준비와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 60(3), 275-297.
11) 배문조・전귀연(2004). 은퇴에 대한 태도 및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2(7), 89-102.
12) 배문조(2007). 직장인의 은퇴기대가 은퇴준비 교육요구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4(2), 145-158.
13) 배희선(2008). 중노년기 가계의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의 이전규모: 증여와 상속을 중심으로, 소비자정책교육연구, 4(4), 81-106.
14) 백은영(2009). 은퇴자의 은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한국노인복지연구, 44, 345-372.
15) 성영애(1999). 가계간의 금전적 보조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10(1), 61-77.
16) 신화용・조병은(2001). 남편이 은퇴한 부부의 자원과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9(1), 39-51.
17) 안종범・전승훈(2002). 은퇴자 가구의 소득과 소비. 제4차 노동패널 학술대회 발표논문.
18) 안종범・전승훈(2005). 은퇴자가구의 적정소득대체율. 한국경제연구학회, 15, 5-33.

19) 여윤경・정순희・문숙재(2007). 한국가계의 은퇴준비에 관한 연구. 소비문화연구, 10(3), 129-155.
20) 유경원(2007). 가계의 교육비와 저축간 관계 분석. 금융경제연구, 312.
21) 이지영・최현자(2009). 우리나라 은퇴자의 은퇴자금 충분성과 영향요인 : 객관적 충분성과 주관적 인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9(1), 215-230.
22) 이지은(2000). 중년기 직장남성의 노후 생활계획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3) 정운영・백은영(2009). 은퇴에 대한 의식, 은퇴태도와 은퇴준비 행동의 인과관계분석. 사회보장연구, 25(2), 115-139.
24) 정지영・양세정(2013). 객관적 은퇴자금준비도와 주관적 은퇴자금준비도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1), 113-127.
25) 정혜경・정영숙(2010). 은퇴만족과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발달, 23(3), 50-70.
26) 중앙일보, 은퇴 후 5억1000만원 필요한데 부지런히 모아도 3억 3000만원, 2010.12.01, 권혁주
27)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KB노후준비지수로 살펴본 한국인 노후준비 실태. 2012.9
28) 통계청, 2010 고령자 통계. 2010.9.29
29) Ando, A. & Modigliani, F.(1963). The life-cycle hypothesis of saving: Aggregate implications and tests. American Economic Review, 53, 55-84.
30) Becker, G.(1974), A theory of social interactions.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2(6), 1063-1094.
31) Becker, G.(1991). A treatise on the famil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32) Becker, G. & Murphy, K.M.(1988). The family and the state.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31(1), 1-18.
33) Bernheim D., Shleifer A., & Summers. L. H.(1985), The strategic bequest motiv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3, 1045-1076.
34) Fishbein, M. & Ajzen, I.(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Addison-Wesley Pub. Co.,
35) McGarry, K. & Schoeni, R.F.(1995). Transfers behavior in the health and retirement study: Measurement and the redistribution of resources within the family.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30S, 184-226.

■ 투 고 일 : 2013년 1월 1일
■ 심 사 일 : 2013년 1월 11일
■ 심사완료일 : 2013년 2월 20일